

사설

방송법 훼손 시도, 그 저의가 섬뜩하다

지난 21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출입하면서 공정거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을 번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리소문 없이 법안이 통과된지 무려 한달 반만의 일이며, 언론노조를 비롯한 방송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야 문방위는 부랴부랴 사태를 진화하는 형국이다. 만약 언론노조가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면 방통위 직원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방송사를 마음껏 출입하는 위험한 사태를 낚지 뻔했다. 하지만 방송법 훼손 우려는 아직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문방위가 이른바 '현장조사권(제85조의2 4항)'을 삭제하고 번안 의결한 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에도 방송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호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제98조의2항'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매년 회계를 정리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08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접근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자칫 방통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한, 방통위가 발의하여 3월 11일 정부 입법발의의 형식으로 상정된 '제58조의2항'의 경우, KBS가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에 경영목표, 예산, 인력, 조직, 시설과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통위의 고시

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1조와 제4조에서 각각 규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다. 이 같은 법안이 알려지자 KBS는 'KBS의 예산과 운영권은 모두 이사회에 있는데 방통위가 월권하려 한다'며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 사례들은 공고롭게도 독립기관인 방송사의 편성이나 운영에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를 두고자 했다는 너무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이번 정권들어 가짜이나 운영진, 편성권, 보도·제작에 대한 초법적인 개입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제 대놓고 '언론사찰'의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두겠다는 저의가 분명하다. 우연찮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공안검사 출신 박만·최찬목 씨를 지명해 방송의 '공안검열'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마저 들려오는 지금에 말이다. 시나브로 방송법에 생채기가 나는 모습에 걱정을 그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열'과 '사찰'이라는 도구로 역대 정권들이 방송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검열'과 '사찰'을 제도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방송사 경영진의 태만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칫하면 방송을 순식간에 윙크할 뻔 했던 이번 사태는 명백히 이들의 직무유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야당이 야당을 견제하지 못하고, 방송사가 낚놓고 있는 사이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한 줌 모래처럼 사라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섬뜩한 미래다.

방통위·문화부,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가동

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조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 회의에서는 향후 조정협의체 운영방안과 협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정기 개최하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과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를 구성해 수시 운영토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협의체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것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이를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관련 중복업무 및 사업 조정, 협력사업의 발굴 추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동노력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상파TV 시청시간 1시간 감소

지난 10년간 지상파TV의 시청시간은 1시간 감소한 반면 케이블TV의 시청시간은 2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가구와 개인의 TV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지상파TV 가구 시청시간은 2001년 5시간 51분에서 2010년 4시간 51분으로 1시간 감소한 반면, 케이블TV 가구 시청시간은 2001년 38분에서 2010년 2시간 55분으로 지속적으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상파TV와 케이블TV 시청시간의 격차가 대폭 줄

었다는 점이다. 2001년에는 지상파TV 시청시간이 케이블TV보다 5시간 13분 많았으나, 2010년에는 지상파TV 시청시간이 케이블TV보다 불과 1시간 55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상파TV와 케이블TV간 시청시간의 차이가 3시간 18분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연령별로 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령이 낮을수록 지상파TV와 케이블TV 간의 시청시간 격차가 줄어들어, 30대 이하 시청자들에게는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지역 DTV시청환경, 아직은 부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약 70일간 'TV 시청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전국 382개 유인도 총 64,68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53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전화 또는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TV 시청행태조사(한국갤럽)'와 100가구 이상의 94개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도시별 최소 4개 지점, 총 396개 지점에서의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에 대해 수신율 및 난시청 여부를 조사한 'TV 송·수신환경조사(중앙전파관리소)'가 동시에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DTV보급률은 32.7%로 전국 평균 58.7%보다 현저히

낮았고 ▲TV수신행태는 위성방송 48.4%, 중계유선 36.3%, 직접수신 13.1%(마을공시청 5.3% 포함), IPTV 1.9%의 순이며, ▲DTV 수신율은 KBS1 기준 57.5%로 육상(88.2%)과 큰 차이가 있었다. 방통위는 도시지역의 DTV 수신율이 육상보다 낮은 이유로 ▲도시 특유의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난시청 ▲도시 내 방송보조국(10개)의 디지털 미전환 ▲KBS1 방송보조국만 설치되어 있는 백령도 및 대청도 가구 수가 많이 분포(백령도 2,500, 대청도 604)해 있을 등을 들었다. 또한, "TV 시청행태"와 "TV 송·수신환경"을 병행 조사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 난시청 지역인 도시지역에 대해 방송사의 송신환경과 시청자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DTV 구매 보조 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 보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협력하여 난시청 해소방안(방송보조국, 소출력증세기, 마을공시청시설 등 구축 및 위성수신기

보급)을 마련하여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가 실시된 도시지역에서의 각 방송사별 DTV 수신율은 KBS1(57.5%) > EBS(57.3%) > MBC(57.2%) > KBS2(5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도시지역 DTV보급률 및 TV 시청행태

지역별	DTV 보급률	TV시청행태		
		실외안테나	마을공시청	위성방송
인천광역시	37.3	6.6	4.5	55.4
경기도	40.6	26.1	-	43.5
충청남도	31.6	34.8	-	64.4
전라북도	24.2	26.0	-	48.0
전라남도	32.2	7.0	5.6	45.4
경상북도	43.0	0.8	3.4	30.7
경상남도	25.1	6.6	9.1	65.9
전국	32.7	7.8	5.3	48.4

EBS 3D다큐 '신들의 땅, 앙코르' 시사회 열려

TV로는 지난 18~20일 2D로 방영



EBS가 전세계 방송사 최초로 만든 3D 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 시사회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렸다.

1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캄보디아 국영TVK 방송과 공동제작한 '앙코르'는 2010년부터 15개월간 기획·제작했으며, 10여명의 세계 석학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3D입체 실사촬영과 입체 컴퓨터그래픽을 동원해 앙코르와트의 대규모 건축과정을 철저하게 고증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작을 담당하는 김유열 EBS편성기획부장은 "세계 최대 박물관인 미국 스미소니언의 방송채널과 종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다큐의 세배 이상의 가격(약 30만 달러)으로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하며, "이외에도 디스커버리 3NET, 영국 SKY3D, 일본 NHK, 프랑스 F5, 이탈리아 채널 등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의 땅, 앙코르'는 지난 18~20일에 EBS TV를 통해 2D로 방영되었으며, 추후 지상파 3D실험방송(관악산 Ch.66) 등을 통해 3D로 방영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택곤 방통심의위 위원 내정 ... 시민사회단체 철회 요구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김택곤 전 JTV 전주방송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성명을 내어 "김택곤 전 사장은 2005년 전주방송에 부임한 이후 제작비와 인건비를 쥐어짜고 노동조합을 탄압해 공공의 재산인 방송을 대중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7년 김준영 전주방송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부당 해고하고, 2011년에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노사합의를 깨고 전·현직 노조위원장을 부당 징

계하는 등 노사관계 파괴의 모든 행위를 보여준 불량 인사다. 언론노조는 이런 이유를 들어 "자본과 대중주에 굴복해 언론인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가 방송인의 영혼을 담은 프로그램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도 "지역방송 노동자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통하는 인사를 방통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고독한 단독 결단"이었던 이번 밀실 인사로 얼마 남지 않은 대표 임기를 얼룩지게 하지 말라"며 "김 전 사장의 추천 철회만이 박 대표가 할 수 있는

범야권 후보들에 대한 강력한 선거지원 활동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앞서 대통령 몫으로는 박만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와 최찬목 김연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위촉됐으며,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추천하는 국회의장 몫으로는 엄광석 전 SBS 논설위원과 권혁부 현 방통심의위 위원, 김택곤 전 JTV 전주방송 사장이 위촉됐다. 국회 문방위는 구종상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장낙인 전북대 지역디지탈미디어센터 초빙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스마트TV 서비스, "방송사 중심으로 표준화해야"

김태환 KBS기술연구소장, 정보통신의날 기념토론회에서 지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요즘 한창 스마트TV를 전면에 내세우며 스마트TV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광고를 보고 있자면 편리한 기능을 앞세운 스마트TV가 곧 TV시장을 휩쓸 것 같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화려한 미사여구에 비해 그 내실이 잘 어울려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가전사들이 서두르고 있는 스마트TV 붐에 대해 방송사에서 따끔한 지적을 내놓았다. 지난 22일 제56회 정보통신의날을 기

념하여 열린 '스마트 시대 미디어 융합 기술 및 서비스의 전망 및 활성화' 토론회에서 KBS 김태환 기술연구소장은 "표준화 없이 각 제조사 별로 플랫폼만 다양해지면 방송사는 제품별로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OHTV와 같이 방송사가 중심된 플랫폼을 표준 삼아 호환가능한 스마트TV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영국 YouView의 경우를

예로 들어 "방송사가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기술의 표준을 공개하고 제조사들이 이에 맞춰 수상기와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김기호 부사장은 "초기에는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 독자적인 플랫폼이 등장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모두 공용화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플랫폼 구축이 늦을 경우 다른 나라와 사업자들이 먼저 시장을 막아치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민영방송대상에 강원GTB '21세기 블루칩 마그네슘'

네트워크 기술상, **청주CJB 김의영 기술국장**

지난 18일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주최한 한국민영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강원민방(GTB)의 창사 9주년 보도특집 '21세기 블루칩 마그네슘'이 대상을 수상하고, 청주방송(CJB) 김의영 기술국장이 네트워크 기술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2011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한국민영방송협회장인 우원길 SBS 사장을 비롯한 10개 민영방송의 사장단과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국민영방송협회

..... 연합회 동정
 · 방송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 참가 (4.14)
 · KOBAC컨퍼런스 정책회의, 6차 (4.19)
 · 미디어행동 집행위원회 참석 (4.20)
 · 연합회 회장단 정책회의 (4.26)

..... 회원사 동정
 · 아리랑국제방송 기술협회 체육대회 (4.22)
 · YTN 미디어센터 (상암동) 기공식 (4.25)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양창근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건희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 백선하 강민수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은행나무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